



企業經營에 있어서

科學技術의 領域

農漁村開發公社 顧問 崔 應 祥

1. 事務家와 技術者

흔히 나는 技術이 없으니까 事務나 보아야 한다든가, 技術者의 머리는 말뚝통이라 주변 머리가 없고 저사람은 面刀날처럼 날카로와 事務를 잘 본다든가, 或은 事務家は 非技術者라든가 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果然 技術이라는 것은 事務家와는 因緣이 없는 것일까? 科學技術은 自然科學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만의 專用物일까? 참으로 事務와 技術은 嚴格히 區分할 수 있는 것일까?

科學이 自然科學의 獨占物이 아닌 것처럼 技術도 事務와 分離시킬 수 없다. 낡은 思考로는 技術이 싫은 사람, 技術을 천하게 여겨 땀쟁이, 석수쟁이, 미쟁이, 木수쟁이, 대장쟁이식으로 부르고 鐵筆대나 휘두르고 椅子에 앉아서 文書나 꾸미는 것을 가장 훌륭한 일로 알고 있는 사람 乃至는 自然科學技術만을 唯一한 技術로 陶醉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事務와 技術이 別個의 것이지만은 現代經營에 있어서는 이미 技術이란 말은 自然科學의 技術도 技術이지만은 事務科學의 技術도 技術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事務에 있어서 正確, 能率增進, 迅速, 簡單하게 「테에타」를 얻기 위하여 電子計算機, 「테에타·센터어」, 會計機, 「레지스터어」, 加算機, 「비즈니스·폼」 등의 利用, 「사이파네틱스」 「파일·시스템」 등의 活用은 完全히 事務의 機械化를 뜻하고, 己往의 事務와 技術의 概念을 뒤엎어 그 限界를 區分짓기 어려운 데까지 다르다고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事務도 하나의 科學인 것이다. 科學과 知識의 다른 點은 보통 普遍性, 妥當性, 論理性에 있다고 본다. 알고 있는 것, 當然한 것을 體系를 세워 整理하는 것이 科學이라고 한다면, 整理되지 않고 體系잡히지 않은 이른바 知識만으로는 그 展開에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事務의 量이 급히 늘던가 事務에 이제 以上の 速度가 要求되거나, 事務에서 보다 以上の 價値를 찾으려든가 等等的의 必要가 생겼을 때 知識만으로는 앞이 막히고 混亂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科學은 發展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하던대로 그대로가 오늘에서 來日로 옮겨지고 마는 것이라면 오늘의 知識만으로 滿足해도 좋겠지마는 萬一 다음 段階에서 現狀을 뚝고 跳躍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科學의 基礎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企業經營은 發展해야만 되는 宿命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企業經營이 社會的인 存在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發展시키는 힘은 낡은 用語로는 事務와 技術, 새로운 表現으로는 綜合技術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 小論에서 綜合技術에 대한 論議를 할 餘裕가 없으므로 便宜上 여기서는 慣例에 따라 科學技術은 自然科學技術을 뜻하는 것으로 하고 주어진 問題를 펼쳐 가기로 한다.

2. 經營에 있어서 利潤性, 技術性, 合理性

經營이 企業인 以上 利潤性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다. 利潤은 資本主義存立의 第一支柱 企業의 生命이기도 하다. 이른바 企業의

事業性, 經濟性, 妥當性이라는 것은 이 利潤性에 根據를 두고 있다. 自由企業의 目標은 利潤追求에 있고 資本은 低利潤에서 高利潤으로 흐른다는 것은 贅言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經營이 利潤만에 눈이 어두어 앞뒤를 가리지 않을 때에는 密輸, 脫稅, 投機, 談合等 가진 악랄하고, 醜雜하고, 變則的인 事態를 誘發하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그만이라는 옳지 못한 思考를 正當化하게 된다. 돈이면 良心도 義理도 人情도 國家도 民族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哲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돈으로 미끼를 삼아 사람을 낚고 萬事를 돈으로 計算하고 돈으로 解決지으려는 習性을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經營에 있어서 利潤性이 第一條件이긴 하되 여기 技術性과 合理性이 加味되지 않으면 이는 절름발이요 마치 어린애에게 칼들린 格으로 危險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過去에는 企業經營에 있어서 技術性은 하나의 商品으로 다루어져 있었다. 技術이라는 것은 機械를 設置하거나 運轉하는데 必要한 知識과 技能쯤으로 생각하고 農業技術같은 것은 技術측에서도 가장 低級하고 「심플」한 것으로 밀어 제치고 있었다.

그러나 企業 또는 經營에 있어서 枝葉的인 것이 아니라 根本的이라는 것이 近者에 와서 더 切實하게 느껴지고 있다.

가령 肥料工業에 있어서 立地問題는 그만 두고라도 蔚山에 建設된 第3肥와 第5肥에 있어서 果然 개울하나 사이를 두고 2個의 水素製造와 암모니아合成施設이 꼭 必要했던 것이나 다시 말해서 別個로 施設하는 것이 더 利潤性이 높았느냐 하고 무를 때 따로따로 하느니보다 합쳐서 하고, 尿素와 複合肥料를 別個로 製造하는 것이 더 有利하다는 것은 製造原價面에서 이미 實驗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技術性이 利潤性과 直結하고 있다는 證左인 것이다.

勿論 事業主體가 다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나 自由企業이니까 개울하나 사이가 아니라 바로 이웃이라도 별수 없다고 辯明할는지 모른다. 구태여 國家의 利益이니 浪費니 하는 論難을 퍼지 않더라도 外國에서와 같이 水素나 암모니아를 사서 複合肥料를 製造하는 것이 새施設을 하여 自家生産하는것 보다 싸게 덕히는 것은 計算해볼 必要조차 없는 明白한 事實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값비싼 製造原價方式을 取했을까? 이것은 經營에 있어서 製造技術단을 爲主하고 經營面에서의 技術檢討와 「코스트」計算을 疎忽히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第4肥와 같은 隔離된 地域의 單獨施設은 不可避한 것이지만 第3肥와 第5肥의 境遇는 確實히 技術의 疎外가 이러한 結果를 낳았고 이것이 오늘날 肥料原價高를 招來케 한 原因中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企業經營에 있어서 利潤性, 技術性과 함께 重要視되어야 할것은 合理性이다. 企業經營은 社會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不當한 方法, 非合理的인 運營은 容納되지 않는 것이다. 밀가루에 色素를 넣어 抗生劑로 팔았다거나 有毒性 色素가 든 食品을 販賣했다거나 하는 謀利行爲는 말할것도 없고 斤量의 不足, 品質의 劣惡, 含量不足等 不正한 手段도 容納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利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麻藥을 宣傳販賣하는 것 같은 社會에 害毒을 끼치는 企業이고 經營이라면 그것이 훌륭한 技術로 開發되고 무지무지한 利潤을 낳는 事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合理性이나 正當性을 發見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經營에 있어서 利潤性, 技術性, 合理性은 三位一體의인 關係에 있고 어느 하나를 重視하거나 置重할수가 없는 相互連關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그 企業의 發展과 成長과 成功을 노린다면 그릇된 利潤中心의 結營에서 技術性과 合理性을 融合한 새 經營體制를 採用하지 않을수 없고, 이것이 곧 그 企業이 사는 길이요 繁榮하는 基礎

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企業은 企業家만의 企業이 아니요 社會의 企業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3. 原料, 製造, 消費, 投術

하나의 製造業을 例로 들었을때 原料를 生産하는 原料供給者와 이 原料를 使用하여 加工하는 製造業者와 이렇게 해서 製造된 商品을 消費하는 需要者와의 關係는 相反된 利害로 얽혀 있는 것이다.

가령 製造業者편에서 볼때에는 될수록 싸게 原料를 購入하여 비싸게 製品을 販賣하는 것이 經營成績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者의 立場에서는 비록 製品價格은 一定하더라도 經營의 合理化로 製造原價를 引下하고 原料의 價格을 비싸게 받아 주기를 願할 것이요, 消費者的 處地에서는 原料도 싸게 하고 製造「코스트」도 싸게 하여 製品價格을 싸게 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이러한 關係에 있기 때문에 最終의 決定者는 누가 物理的 힘의 強하나에 달려 있다고 보아 큰 틀림이 없다. 消費者的 힘이 強하면 製品의 값을 올릴수 없을 것이며 製造業者가 強하면 原料값도 깎을수 있고 從業員의 賃金도 制限할 수 있으며 商品의 販賣價格도 左右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概의 境遇에 있어서 生産者나 消費者는 個個의 힘이 弱하고 分散되고 利害에 어둡고 諦念의이기 때문에 힘있고, 強하고 利害에 밝고 強壓의인 製造業者의 손안에 놀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橫暴를 막기 위하여 原料價格을 協定, 製品價格의 公定, 協定等 政府가 價格調整에 干與하여 零細한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하는 政策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重大한 虛點이 하나 있다. 그것은 技術인 것이다.

製造業者는 主로 工場內의 製造工程에서의 이른바 製造技術에만 沒頭하고 原料生産技術에 疎忽하기 때문에 往往 本意아닌 過誤를 犯

하게 된다. 例를 들면 「펄프」工場에서 갈대밭의 資源을 보고 工場을 세우고 伐採만 했을 뿐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原料의 枯渴로 工場의 門을 닫게 되었다는 農業技術實話에 대한 貧因에서 저지른 失手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事例는 우리 周邊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낼수 있다. 가령 澱粉加工工場 121 個中 休廢業이 22工場, 綜合園藝加工 62工場中 休廢業이 그 35.5%인 22工場, 製油 81工場中 15.2%, 水産物통조림 50工場中 36.0%, 肉加工 37工場中 59.5%, 飼料 44工場中 36.4%, 皮革加工 40工場中 55.0%가 休廢業中에 있다는 것은 製造技術만을 생각하고 關聯技術을 忘却한데 主要原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不振理由의 根本的인 것은 原料不足과 資金難에 歸着되고 있다. 資金이 있으면 原料不足을 어느程度 메꿀수 있겠지마는 原料 聚集資金이 있다고 반드시 原料가 確保된다고는 볼수 없다. 왜냐 하면 農産物이란 워낙 季節性이 強하기 때문에 貯藏이 可能한 것은 資金만 있으면 收集, 貯藏이 되겠지마는 貯藏에 견디지 못하거나 費用이 많이 드는것은 經濟的으로 이를 保管, 貯藏할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産物은 收穫期를 달리하여 栽培하는 道理밖에 없고 時期를 달리하려면 氣象條件에 맞지 않아 栽培가 制限되고 經濟的으로는 對抗作物이 있는 경우 工場稼動을 위해 耕作者가 犧牲하면서까지 栽培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原料供給의 可能性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工場의 年中 稼動對策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工場을 建設하였기 때문에 休廢業이 續出하고 稼動率이 低下되어 製品原價의 上昇을 招來하게 되고 이것은 또 販路의 惡化 製品需要의 減退, 經營의 不振을 自招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技術은 製造技術과 함께 關聯技術,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綜合技術로 上昇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機械가 優秀하고 性能이 좋다고 해서 經營이 優秀하게 되는것이 아니다. 生産에서 消費에 이르는 全過程에 技術이

最高度로 活用, 發揮되어야 經營의 優秀성이 立證될 수 있는 것이다.

4. 經營의 新類型과 科學技術의 活用

農漁村開發公社가 하나의 企業經營體이면서 다른 國營 또는 民間企業體와 다른 點은 企業의 利潤性과 함께 技術性, 合理性에 큰 比重을 얻는데 있다고 보아도 좋다.

公社設立의 目的이 農漁民의 所得增大와 生活水準向上에 있느니만큼 먼저 原料生産者인 農漁民의 所得을 높이기 위해서는 原料生産物의 量과 質을 높이는 同時에 適正價格으로 擴大再生産을 保障하는 한편 農民資本의 參與, 農村勞動力의 雇傭으로 所得의 增大, 確保, 維持, 安定을 期하여야 하는 것이며 公社가 單獨 또는 民間 또는 外國資本과 合體하여 投資하는 農水産物의 貯藏, 處理, 加工하는 經營體는 適正한 利潤이 保障되어야 하며 이것이 實現되기 위하여 高度新技術의 導入, 經營의 合理化, 最大의 奉仕가 이루어져야 하며 製品市場의 確保擴大를 위하여는 安定된 低廉한 價格, 需要者의 要求에 알맞는 品位의 製品, 新時代感覺에 適應하는 製品의 開發策을 必要로 하며 이를 위한 不斷한 研究과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것은 말할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原料生産者의 利得과 製造業者의 合理的利潤, 消費者의 保護라는 相反된 利害關係者의 調整을 同時에 이룩해야 하는 新類型의 經營이 登場하게 된다.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企業經營이 利潤追求를 위하여 努力한다는 것은 몰라도 原料提供者와 需要者인 顧客에게 同時에 滿足을 준다는 論理는 從前의 思考로써는 到底히 理解하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自由民間企業과 競爭할 수 있다면 이것은 實로 희창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언제나 話題를 모으고 있는 國營企業體의 不健全한 運營과 民間企業의 뼈저린 苦衷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름을 잡는듯한 이야기가 기언가 미언가 疑心적지 않은 바도 아니다.

그러나 公社의 長點은 첫째로 資金面에서 施味가 있는것 둘째로 行政支援을 얻을수 있는것, 셋째 完全히 自由企業으로서의 行動의 自由가 있는것, 넷째 새「아이디어」와 新體制로 新類型에 適合케 하려는것, 다섯째 時代精神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것 등에서 찾을수 있고 短點은 첫째 指導者體制이기 때문에 恒續性이 念慮되고 둘째 舊體制에서 新體制로 脫皮하는 過程에서의 터뒀이가 順탄치 않으며 셋째 訓練된 人員의 不足이라고 할 것이다.

既存 企業體에 있어서는 必要한 原料의 開發에는 力點을 두지 않고 있다. 있는 原料의 集荷 또는 싸면 사고 비싸면 안사는 短期的眼目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公社는 工場周邊의 原料供給圈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原料作用의 開發에 힘쓰고 品種改良, 栽培法의 改善 등으로 單位面積當收量의 增加와 生産量의 引下를 꾀하여 農家收益에 寄與하고 아울러 安定된 價格으로 確實히 引受하는 體制를 強化하고 主作用에 依한 專業農家を 育成하여 安定自立農家로 끌어 올리는 것을 當面の 目標로 하기 때문에 生産된 것을 거두어 가는 在來式 企業經營과는 그 事業方針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公社는 工場에서의 製造技術뿐만 아니라 原料生産技術에도 最新의 科學技術을 導入하여 新經濟作用의 開發과 增産으로 原料難을 解消하고 工場의 稼動率을 높여 이른바 三者(生産者, 加工者, 消費者) 共榮의 原理를 具體化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成不成은 뒤에 歷史가 證明할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企業經營과는 달리 經營에 있어서 科學技術을 높게 評價할뿐만 아니라 科學技術이 가진 機能을 十二分 活用하여 原料의 生産面에서부터 消費에 이르는 全過程에서 部分的이 아니오 全體를 洞察하고 組織하고 連結짓는다는 點에서 舊類型의 經營과 區別될수 있으며 經營自體의 利潤도 重要하지마는 原料供給者의 所得의 重視와 消費者價格의 安定이라는 社會性을 經營의 一部로 <P. 32면>